

봉은사, 선종 수사찰 위상 되찾는다

조선시대 선종 수사찰(禪宗 首寺刹)이었던 강남 봉은사가 선종학림에 팔을 걷어 부친다.

최근 봉은문화센터 3층에 시민선방을 개원한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2월 21~4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 보우당에서 '봉은학림 육조단경 논강'을 개최한다.

논강은 선종의 제일 경전인 <돈황본 육조단경>을 기본교재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8강으로 진행될 육조단경 논강은 1강부터 4강은 '좌선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어떠한 경지인가?'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불교는 육조단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강의로 열린다. 5,6,7강은 육조단

2월 21일부터 육조단경 논강 8강까지 강의, 토론으로 진행 "선, 미래문화 선도에 기여할 것"

경의 세분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주 및 논사가 함께한 가운데 논강식으로 개최되고, 제8강은 오랫동안 실천 수행한 스님의 수행담을 듣는 형식으로 열린다. 육조단경 논강에는 고우 해국 성본 유진 스님과 이중표 교수 김진태 씨가 강의하고, 논사는 강목 정각 스님,

김재성 박인성씨가 참여할 예정이다.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선수행의 생활화와 바른 이해를 위해 법석을 준비했다"며 "논강을 통하여 선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문화가 미래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봉은사는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정초 7일 산림기도법회를 개최한다. 산림기도법회는 석주(봉은사 조식) 해인 정락(옹주사 주지) 성우(BTN 회장) 정무(석남사 주지) 지관(가산불교연구원장) 원혜(봉은사 주지) 스님이 법륜한다. 문의 02 511-6070-4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정대 스님 부도탑 제막식



■사리 200여과 봉안 제 30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정대 스님 49세 및 부도탑 비 제막식이 1월 5일 안양 삼막사에서 열렸다. 삼막사 대웅전 옆에 조성된 부도탑에는 스님의 사리 200

여과가 봉안됐다. 이날 정대스님 49세 및 사리탑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 의원 천운 스님을 비롯 오현, 정휴, 원택, 정락, 세민, 종상, 현문, 범여, 자승 스님과 흥기삼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겨울철 사찰화재 조심하세요

약사사 지장전, 신광사 선방 전소

겨울철 건조기를 맞아 화재로 범당과 귀중한 성보문화재가 전소되고 있어 사찰화재예방이 요구되고있다.

갑신년 첫날인 1일 무안 약사사주지(경춘) 지장전이 화재로 전소됐다. 주지 경춘 스님에 따르면 "새벽 1시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이미 지장전이 불길에 휩싸였다"며 "화재당시 법당에서 나오던 정신질환자 임모여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소된 지장전은 21평 목조건물로 범당내에 있던 금동지장불을 비롯 500불과 3백년된 칠성탱화 등 성보문화재가 불에 타 5억여원(사찰추징)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장수 신광사주지 고경도 4일 전기누전으로 선방이 전소됐다. 신광사 선방은 대웅전옆에 자리한 26평 규모의 목조건물이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사찰별로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시설 강화, 화기주의, 소방시설 점검 등 건조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연천 심원사지 1차 복원계획 천불전 복원 및 교량 4곳 착공

경기도 연천군은 지장기도량인 심원사지 복원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천불전과 진입로, 교량 4곳을 올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1월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발굴조사를 끝낸 심원사지는 1차 복원사업 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발굴 작업을 거쳐 심원사가 원형으로 복원되는 수순을 거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차맛처럼 법향에 빠졌어요"

여여선원 다도회 여다혜 보살

7일, 부산 불교회관내 여여선원 7층 선방에서는 다도 강좌가 한창이다. 여다혜(53, 본명 박유순) 보살의 지도로 다도 강좌가 열리는 날, 여여선원 다도회 여다림 회원들은 단복을 곁에 차려입고 의식다례를 공부하고 있었다. 3년 전 결성된 여다림의 회원은 300여 명으로 모두 여다혜 보살의 제자들이다. 몇 개월만 차에 대해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다

인연도 차로 맺어졌다. 다선일여(禪一如)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정여 스님을 만나면서 여다혜 보살의 차포교는 더욱 본격화되었다. 수요일 금요일 다도교육과 매주 일요일 여여선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을 통해 불교와 전통의 집목을 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여자대학, 예술대학 등에서 교양과목으로 다도를 가르치고 있다.



여다혜 보살(오른쪽 서 있는 사람)이 여여선원 선방에서 다도강좌를 지도하고 있다.

다도 교육을 찾는 그들이 벌써 3년째 다도에 푹 빠져 차를 사랑하

넉넉한 성품으로 회원들 인화에 큰 힘 청소년 예절교육 등 차 포교에 앞장

는 사람들이 모인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다혜 보살의 차향처럼 은근한 성품이 큰 몫을 했다.

"선생님에게 반해서 다도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여다혜 보살은 사람을 끄는 온기를 가졌다. 한사람 한사람을 품어주는 여다혜 보살의 넉넉한 성품은 여여선원 신도회 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인화를 다지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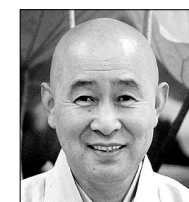
20대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어 기도에 열성이던 여다혜 보살이 10여 년 전 차와 인연을 맺은 이후 오랜 원이었던 선방공부를 포기하고 차를 통한 포교를 발원했다. 여여선원과

육법공양, 헌다 등으로 여여선원 크고 작은 행사에서 정성을 공양하

는 여다림 회원들의 행(行)은 여여선원의 얼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원 봉사, 총합사 헌다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불교와 차, 복지와의 만남을 실현하고 있기도 하다.

여다혜 보살은 "차를 배우면서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남을 위해 보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다"며 "차를 통해 단 한사람이라도 바른 불법 만나는 인연을 맺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차를 통해 수신(修身), 수심(修心)을 행하고 다른 이의 마음결까지 보살피는 여다혜 보살의 마음 이 깊은 차맛처럼 오랜 여운으로 남았다.

부산=천미희기자



추천의 말

정여스님 여여선원장

다도 교육을 통해 진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이끌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예절, 전통예절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맑고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 신도님들의 수행을 돕는 셈이지요. 뿐만 아니라 핵가족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예절을

상 내지 않는 참불자

바로잡도록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실을 열어 우리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상을 내지 않으면서도 차를 통해 불법을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어 전 신도들이 모두 다도를 배우 참나를 발견하는 고요한 심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해남 사암련 신년하례법회 동산 스님 등 1백여명 참석

해남 군민의 평안과 지역번영을 기원하는 '해남사암련회 신년 하례법회'가 1월 6일 해남관광호텔에서 열렸다.

해남불교사암련회가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동산(대흥사 주지)스님 등 지

역스님과 이정일 국회의원(민주당), 민화식 해남군수, 최문식 군의장, 현석 교육장, 김신기 경찰서장 등 관내기관장, 신행단체장 등 1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해남사암련 회장 동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지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남의 지도자들이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사진)

한편 해남군민연대 공동대표 삼각 스님(은적사 주지), 대흥사 재무 도정 스님을 비롯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해남군내 4개 종교지도자와 해남군민연대 소속 12개 시민단체 대표 20여명은 1월 6일 사내 음식집 '명가'에서 신년하례식을 갖고 해남군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영암 도갑사 진신사리 이운법회 월출산 불사리 대흥사로 분과

영암 도갑사주지 범각는 6일 대웅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이운법회'를 봉행하고 불사리 5과를 분과해 대흥사로 이운했다.

이날 이운한 불사리는 1995년 월출산 용암사지 동탑에서 나온 불사리 33과 가운데 일부로 현재 해제 복원중인 대흥사 응진전 앞 3층석탑에 10일 봉안됐다. 범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해남 불자뿐 아니라 온국민이 부처님 친견하듯 참배하고 발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이준엽 기자



2004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모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 합니다.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교학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	· 강원사교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승 가 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 입학원서(소정양식)	
범 패 과	2년	정규00명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 반명합판사진 6매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 1982. 10. 18. 한국불교대학교종 종립 "불교포교사 전문대학"으로 개교제1회 입학식(김병규 초대학장 취임)불교학과 개설
- 1983. 6. 1. 본교 교명을 "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
- 1984. 9. 1. 제1회 졸업식
- 1985. 2. 20. 제2회 졸업식
- 1985. 11. 11. 중곡동 임시교사에서 성북동 중앙불교회관으로 교사 이전
- 1986. 2. 25. 제3회 졸업식
- 1987. 2. 20. 제4회 졸업식
- 1988. 2. 23. 제5회 졸업식

- 1988. 5. 28. 제3대 이영무 학장 취임
- 1989. 2. 25. 제6회 졸업식
- 1989. 5. 1. 제4대 이재복 학장 취임
- 1990. 2. 24. 제7회 졸업식
- 1990. 3. 1. 법학과 신설 및 기숙사 개설
- 1991. 2. 24. 제8회 졸업식
- 1991. 3. 1. 불미미술과 신설
- 1991. 9. 14. 제5대 정태혁 학장 취임
- 1992. 2. 22. 제9회 졸업식
- 1992. 3. 1. 유아교육과 신설
- 1993. 2. 20. 제10회 졸업식

- 1994. 2. 26. 제11회 졸업식
- 1994. 3. 1. 한의예과 신설
- 1995. 2. 25. 제12회 졸업식
- 1996. 2. 10. 제13회 졸업식
- 1997. 2. 27. 제14회 졸업식
- 1998. 2. 24. 제15회 졸업식
- 1999. 2. 26. 제16회 졸업식
- 2000. 2. 24. 제17회 졸업식
- 2001. 2. 24. 제18회 졸업식
- 2002. 2. 27. 제19회 졸업식
- 2003. 2. 27. 제20회 졸업식

- 졸업생 전원 2급 정보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품수
- 범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재수리기술 기술자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2004년 1월 14일(토) ~ 2004년 2월 18일(수)
 2004년 2월 21일(토) 오전 10시 ~ 오후 5:00시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범패과 · 불교미술과)
 ·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h·p www.dongbang.org
 E-mail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종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TEL 02) 382-7361~2
 · 각 시 · 도 교구총무원
 · 경서원(조계사암) : 136-823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33-3345